

스리랑카 현황, 쓰나미 원조동향 및 MDG 추진 현황

정영선 / 자원사업 3팀

I. 스리랑카 현황

1. 정치 및 평화협상(Peace Process) 진행 현황

- 약 450년간의 포르투갈, 네덜란드 및 영국의 식민 통치를 경험한 스리랑카는 1948년 Ceylon으로 독립한 이후 여러 정치적 굴곡을 겪어 왔음. 1994년 정권을 잡은 Kumaratunga가 재선을 통해 10여 년째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중심제에 수상 중심의 의원내각제 가미로 국정운영을 둘러싼 총리와의 알력관계 심화에 따라 정국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스리랑카 내전은 전체 1,935만 인구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74%)이 소수 힌두계 타밀족(18%)에 대한 차별정책의 반발로 시작되어, 독립국가 수립을 주장하는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와 정부군과의 내전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2002년 노르웨이의 중재 노력으로 스리랑카 정부와 LTTE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2003년 3월까지 6차에 걸친 회담이 진행됨.
- 2003년 4월 이후 양측간 평화협상은 중단되었으나 1983년 내전 이후 최초로 현재까지 3년간 휴전 상태는 지속되고 있음.
- 2004년 12월 쓰나미 발생 이후 스리랑카 북동쪽 피해지역에 대한 원조물품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측과 타밀측이 관련 협상을 진행함.
- 금년 5월 Kumaratunga 대통령이 노르웨이 정부에 평화협상 촉진 역할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노르웨이 협상촉진단이 당사자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협상의제 설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협상당사자간에 이견이 커 협상 재개는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스리랑카 주요 경제지표추이 및 전망〉

구분	단위	2002	2003	2004(잠정)	2005전망	2006전망
경상 GDP	억 불	165	183	196	NA	NA
인구	십만명	186	188	189	191	193
GDP 실질성장률	%	4.0	5.9	5.2	5.6	6.0
1인당 GDP	불	872	947	1,039	NA	NA
실업률	%	8.7	8.5	8.0	7.4	7.0
수입(FOB)	억불	61	67	72	80	85
수출(FOB)	억불	47	51	54	61	66
재정적자	GDP비중	8.9	8.0	8.6	7.9	7.2
환율(평균)	RS/US\$	95.66	96.52	101.18	105.39	109.44

※자료원 : EIU(2004.12), 중앙은행 보고서, World Market Research Centre(2004.12)

2. 경제 현황 및 전망

- 스리랑카 경제는 2001년 경기침체(-1.5%) 이후 2002부터는 평균 5%의 경제성장률 유지
- 2001년 2월 평화협정 체결 후 내수경기는 점차 회복 추세임.
 - 2001년 2월 스리랑카 정부와 LTTE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약 2년 이상 대규모의 소요사태 없이 평화상태가 유지됨.
- 실업률은 2002~2005년 통계상 8.8%~8.5%로 과거에 비해 다소 안정화 추세에 있음.
-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2001년 14.2%에서 2001년 7.6%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 다시 11%로 상승중임.
- 2005년 주요 부문별 성장 전망(스리랑카 중앙은행)
 - 농업 등 1차산업 2.7%, 제조업 5.3%, 서비스업 6.4% 성장
 - 세계시장의 회복과 스리랑카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주요 바이어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미국과 FTA 조속 체결이 관건 (미국시장 비중 70%대)
- 내수시장도 국내수요 호조로 건설분야를 필두로 고성장 전망
- 건설 분야는 인프라, 호텔 등 휴양시설, 아파트, 주택, 오피스 및 상가 등 신규 건축이 활발
- 스리랑카 경제의 55%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별 GDP 성장률 1990~2004〉

	1990~2000 Average	2001	2002	2003	2004
농업분야	2.5	-3.4	2.5	1.6	-0.7
산업분야	6.8	-2.1	1.0	5.5	5.2
제조업	8.1	-4.2	2.1	4.2	5.1
건설	5.2	2.5	0.8	5.5	6.6
서비스업 분야	5.6	-0.5	6.1	7.9	7.6
운송, 저장, 통신	6.4	3.8	7.6	10.2	13.7
무역	5.5	-6.7	5.6	7.3	5.7
금융, 보험 및 부동산	7.7	7.9	11.1	10.6	6.6
공공행정 및 국방	3.5	1.0	0.0	0.6	2.0
GDP	5.3	-1.5	4.0	6.0	5.4
국민 저축	19.8	20.3	19.5	21.3	-
총 투자	25.2	22.0	21.3	22.3	25.0
외국인 직접투자 (US\$ Mil.)	164	172	197	229	227
민영화 수익	39	90	5.0	30	0

※ 자료원: 스리랑카 중앙은행

부문은 GDP 성장기여도가 70%대로 가장 높고 부문별 성장률에서도 1위를 기록함.

□ 주재국 정부(중앙은행 및 재무부)는 금번 해일피해의 복구·재건에 15~16억불(GDP의 7~7.3%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3. 쓰나미 피해 현황

1) 피해 현황

□ 스리랑카 섬을 둘러싼 800마일 해안중 서북쪽 자프나(Jaffna)와 칠로(Chilaw) 사이 100마일의 해안을 제외한 전 해안이 피해를 입음.

-2004.12.26 남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 피해로 스리랑카는 사상 최대의 인적·물질적 피해를 입음.

〈쓰나미 피해현황 및 복구 필요예산(단위:백만달러)〉

분야	손실		필요 예산		
	자산 손실	산출물 손실	단기	중기	계
주택	306~341	-	50	387~437	437~487
도로	60	-	25	175	200
물과 위생	42	-	64	53	117
철도	15	-	40	90	130
교육	26	-	13	32	45
보건	60	-	17	67	84
농업	3	-	2	2	4
수산업	97	200	69	49	118
관광업	250	130	130	-	130
전력	10	-	27	40~50	67~77
환경	10	-	6	12	18
복지	-	-	30	-	30
기타	90	-	30	120	150
총계	970~1,000	330	500	1,100~1,100	1,500~1,600
GDP 비율	4.4~4.6	1.5			7.0~7.3

※자료원 : ADB, JBIC, WORLD BANK(2005)

3) 쓰나미 재난복구 추진 중점 전략

□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기본전략은 ①피해 당사자들의 재건복구 참여 유도를 위한 주택 등의 개인 사유화 추진 ②실업 및 빈곤 등 극복 지원을 위한 주민생계 지원 ③쓰나미 및 분쟁 피해지역이며 빈곤지역인 스리랑카 북동지역 지원 집중 ④기존시설 복구를 뛰어 넘어 현대적 인프라 구축 지향 ⑤GO 및 NGO간 지원분야 차별화-GO 및 국제기구는 주거행정단지 및 도로, 항만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 NGO는 주택, 병원, 학교 등 건축 지원 ⑥지원 시설물의 향후 유지관리 능력 비용 사전 감안 등

□ 재난복구 추진 기본 원칙(Guiding Principle)

-재난복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①지역 복구수요 및 우선순위에 의거해 지원 ②중앙정부 및 지방행정조직간 역할 분장 및 보완원칙(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③피해지역 및 당사자들과의 대화 ④지원정책 결정 및 실행에 있어 투명성 제고 ⑤향후 자연재해 취약성 사전 예방 ⑥지원사업간 중복 방지를 위한 조정 등

2) 국민경제상 영향

□ 최대 피해산업인 수산업 및 관광업에 대한 피해는 분석에 따라 GDP의 2~2.5% 또는 GDP의 3.5% 이내로 보는 견해도 있음.

II. 스리랑카 국가개발 계획:신 개발 계획 및 개발과제

□ 스리랑카 정부는 캔디(Kandy)에서 개최된 스리랑카 개발포럼(2005.5.16~18)에서 스리랑카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아래 '신 개발계획(New Development Strategy)'을 발표함.

□ 신 개발계획의 추진 배경

- 현 수준의 경제성장(5%)으로는 빈곤감축,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실업해소 및 국가부채 경감에 충분치 않음.
- 그간의 시장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정책 등 경제개혁 노력의 성과 부족
- 빈곤지수, 분쟁 및 쓰나미 재건 필요에 따라 전 반적인 신 개발 프레임워크가 요구됨.

□ 중기 개발 목표

- 경제성장률 6~8%대 달성
- 지역 개발 불균형 시정을 위한 포괄적 개발 확산
- 국제경쟁력 제고와 GDP의 30% 이상의 투자 유도 등

□ 개발계획 추진상의 문제점

- 전기, 도로, 수송 인프라 부족에 따른 거래비용 및 불확실성 증가
- 정부재정 적자에 따른 공공투자 제한
- 고비용의 자금조달, 시장 불완전 및 부적절한 규제시스템
- 국제 고유가 등 외부 영향에 대한 취약성 등

□ 중기 계획 도전 목표

- 정부 세수를 GDP의 19% 수준까지 증대, 재정흑자 및 공공투자 확대
- 정부부채 비중 점진 축소
- 중기 지출 프레임워크에 따른 공공지출 질적 개선

- 빈곤층에 대한 공공투자, 북동지역 개발, 쓰나미 복구, MDG 목표 달성 등을 위한 집중적 예산 프레임워크 관리 등

□ 정책 실행 계획(Reform Initiative)

- 담당 행정기관의 제도구축 및 역량배양 (Institutional & Capacity Building)
- 거버넌스 및 효율성(Governance & Efficiency)
- 국가 재정부문 개혁
- Business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도 개혁
- 고위험 투자부문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제고 등

□ 빈곤감축 실행 정책

- 지역 인프라 구축 및 빈곤층 대상 신용 대출 등
- 유역 및 농촌 관개망 확충
- 지방 도로 복구 및 중소기업 육성
- 신기술, 운영능력 등의 제공을 위해 지방 산업센터 구축
- 지방 전화(electrification) 프로그램 실시
- 지방 상수도 및 위생 사업 착수 등

Ⅲ. 국제사회의 對스리랑카 원조 현황

□ 쓰나미 복구를 위한 필요예산은 총 15억불~16억 불로 추정되며 원조공여국(국제기구 및 민간부문 포함)들의 총 공약 규모는 약 24억불로 동 지원규모는 부채탕감분을 제외한 것임.

□ 대부분의 재원은 주택건설, 교통인프라, 농·어민 및 중소기업의 활동 정상화에 소모될 것임. 지정학

적으로는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가 총 소요예산의 60%를 차지

- 원조지원 약속규모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지원 시기와 실제 지원 원조 금액은 불확실한 상태임.

〈쓰나미 복구에 대한 선진국 지원 규모〉

(단위: 백만불)

공여국 & 기관	총공여액	추가예상액	부채탕감 2005	총계
양자원조	784	199	339	1,322
프랑스	109		9	118
독일	81		36	117
인도	22	30	5	57
이탈리아	11	149	10	170
일본	180		209	389
미국	62	40	102	
다자기구	646	57	0	703
ADB	150			150
World Bank	150			150
UN agency	69	2		71
EU	75	55		130
NGOs/민간분야	720			720
총계	2,150	256	339	2,745

※ 자료원 : External Resource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2005.4.27)

- 스리랑카 개발계획 및 빈곤감축 관련 원조공여국 공통의견 (스리랑카 개발포럼 논의 내용)
 - 스리랑카 정부가 달성한 MDG 개발 성과를 치하하지만 지역간 불균형, 즉 북동지역에서의 소득, 빈곤, 영양부족 부문의 격차는 더욱 벌어짐.
 - 금번 쓰나미로 인해 2015년까지의 MDG 달성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담보 상태에

있는 Peace Process는 MDG 달성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 가능

- 또한 금번 개발계획이 공평하고 지속적인 개발 계획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이 절실함.
- 따라서 MDG 달성을 위한 빈곤감축 전략 등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겠음.

※ 한국대표 언급 내용

- 스리랑카 정부가 발표한 중기계획의 목표 달성과 관련, 스리랑카의 당면 현황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사항의 중점적인 추진 필요

① 스리랑카의 Peace Process-개발에 있어서 National Consensus 도모 ② 스리랑카의 지역 발전 불균형 -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Development Program 시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③ 스리랑카의 정부재정 및 세수 확대 -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실시 권고

IV. 한국의 對스리랑카 지원 현황

1. 대 스리랑카 지원실적 ('91~2004)

〈14년간 총 15,039.8천불 지원/연평균 1,074천불〉

(단위: 천불)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잠정)
금액	396	398	607	953	1,109	1,741	2,359	673	1,075	743	1,054	1,134	1,443	1,354.9
순위	4/120	6/128	5/133	5/143	4/139	3/140	3/139	12/126	4/128	10/133	10/138	15/123	12/130	-

〈사업별 지원내역〉

사업명	인원/건수	지원액(천불)	세부내역
연수생초청	531명	2,005.2	한국어교육, 직업훈련, 한의학제도와 전통의학발전, 아시아 폐하수처리시설관리, 관세기법, 산업개발정책과 산업구조조정, 기상예보, 레이더접근관제 등
전문가파견	16명	259.1	농업정책, 컴퓨터, 직업훈련, 도로건설, 경영 등
의료단파견	1명	152.5	한 의사
태권도사범	1명	198.6	이기수(2000.4.19~2006.4.18/스리랑카태권도협회)
해외봉사단	169	4,807.6	컴퓨터, 체육교육, 봉제, 용접, 전기공학, 전자, 치과 등
개발조사	4건	1,500.1	열병합발전소건립타당성조사(94-95/150천불) 하트-누아라엘리아도로개보수타당성조사(00-01/319천불) 푸탈람-트린코말리도로개보수타당성조사(03-04/1,200천불) 도로개보수타당성조사사업(03-04/1,200천불)
물자공여		257.2	서버컴퓨터, 컴퓨터, 서버용 AVR, 방탄복 등
긴급원조		100.4	홍수, 한발피해구호
프로젝트	7건	5,632.2	개방대학 한국어교육 지원사업('93/60천불) 아동복 지원사업('93/130천불) 직업훈련원 지원사업('94~'96/2,000천불) 원양어선항법장치 지원('96~'98/2,000천불) 개방대 자동차실습실 지원사업('96~'98/1,000천불) 원양어선 항법장치 지원2차('01~'02/1,000천불) 자프나 기능대학 기능개선사업('04~'05/2,330천불)
NGO지원	2단체	126.9	진각복지재단, 월드비전
계		15,039.8	

2. 2005년 사업계획(쓰나미 관련 지원분 제외)

〈2005년 사업계획〉

구분	지원내역	비고
계	3,650천불	
연수생	30과정 50명(215천불)	
전문가	1명(25천불): 수치가상예보(6개월)	신규파견
의료단	1명(75천불): 한 의사	계속파견
태권도사범	1명(62천불)	계속파견
봉사단	100명(1,902천불) - 신규파견인원 40명: 일반 12, 팀제 20, 협력요원 8	
개발조사	1건(426천불) - 빠데니아-아누라다푸라 도로개량 실시설계('05-'07/900천불)	
프로젝트	2건(900천불): 신규 1, 계속 1 - Zahira College 교사신축 사업 350천불('05-'06/500천불) - 자프나 기능대학 기능개선사업 550천불('04-'05/2,330천불)	
NGO지원	1건(45천불) - 한국복지재단(아동지원사업)	

3. 쓰나미 관련 지원현황

- 지원액 : 총 15백만불(2005~2007)
- 내역 : 긴급구호 1.3백만불, 재건지원 13.7백만불

1) 긴급구호 추진현황

- 현금지원: 60만불 지원완료
- 물자지원: 70만불 지원완료(담요, 텐트 및 의약품 등 38종)

〈긴급 구호지원내역〉

- 스리랑카에는 긴급구호차원에서 총 130만불 상당을 기지원
 - 긴급구호(130만불) : 현금(60만불), 구호물자(70만불)
 - 현지 KOICA봉사단이 재건복구활동 지원에 참여(총 46명)
-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방역·방재 봉사단파견 및 긴급 구호팀
- 봉사단파견 : 45명
 - 보건의료, 방역·방재 봉사단 : 10명/1.12~1.25 (14일)
 - 긴급구호팀 파견 : 35명/1.22~2.2 (10일)
 - 경북대학교 19명, 한경대학교 15명, 기자
- 팀제봉사단 : 18명(3~6개월)

2) 재건지원사업 추진현황

- 지원액 : 13.7백만불
- 추진현황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9가지 사업을 스리랑카에 제시

3) 스리랑카 재건지원 패키지(안)

- 주스리랑카 대사관은 EDCF 지원사업(2000~2500만불 규모)과 무상지원(1,370만불)을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신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스리랑카측과 협의 중
- 5.11, 스리랑카, '종합행정단지 건설 프로젝트', 마타라 '도시개발 3개사업(신교량 건설, 화란시대 Fort 유적 보전, 쓰나미 도시공원 조성)'을 최종 선정, 아측에 요청
- UNDP를 통한 지원액 총 50만불 중 20만불을 스리랑카의(Environment-Sustainable Recovery of Natural Resources) 지원에 배정

〈스리랑카 재건지원 패키지(안)〉

사업명	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비(천불)
① 피해 여촌지역 재건지원 - 어선항법장치지원사업(250만달러) - 제빙시설지원(100만달러)	Galle, Trincomalee, Hambantota, Kalutara, etc	2005~2007	3,500
② 학교건축사업	"	"	5,000
③ 병원건축사업	"	"	4,000
④ 피해 여항 복원사업	"	"	200
⑤ 물자지원	Little Basses Area, Great Basses Area	"	300
⑥ 연수생초청	-	"	100
⑦ 조기 경보체계 구축	Galle Area	6개월	500
⑧ 농업기반시설 복구	Hambantota, Ampara	12개월	3,280
⑨ FRP 어선제공			450

V. 스리랑카의 천년개발계획 (Millennium Development Goal) 추진 현황

- 201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천년개발목표(MDGs)달성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초등교육, 성평등, 영·유아 및 모자 사망률 감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영아사망률 감소성과는 높지만 영양실조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빈곤감소 분야의 실적은 저조한 편임.

〈스리랑카 정부의 MDG 추진 현황〉

MDG 목표	스리랑카의 상황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현재 총 초등학교 입학률 96%
2015년까지, 초·중등교육의 성불균형 철폐	모든 교육수준에서 성평등 달성
1990년~2015년 사이, 영·유아 사망률 2/3 감소	975년~2001년 사이, 출생 1,000명당 영아사망률 45명에서 12명으로 감소, 유아 사망률은 100명에서 17명으로 감소
1990년~2005년 사이, 모자사망률 3/4 감소	모자 사망률(출생 100,000명당 23명), 중간 소득 국가 기준
1990년~2015년 사이, 빈곤률 절반 감소	빈곤은 1990~1991년 26.1%에서 2002년 22.7%로 감소

- 스리랑카 정부는 MDG Report에서 아래와 같이 빈곤감소 및 균형적 성장을 위한 목표를 제시함.

가. 공공재정 관리

- GDP의 105%에 이르는 공공부채 감소
- 부가가치세, 소득세증가 및 세무기관 개혁을 통한 세입증대

-GDP의 4%에 이르는 공무원 임금의 안정적 지불

나. 공공서비스 개선

- 임금 및 고용정책 개혁
- 공공지출의 우선순위 결정 및 빈곤감소전략과의 연계
- 공기업의 역량강화

다. 농업의 활성화

- 토지소유권 및 토지거래권의 보장
- 선진 영농기술 전파 확대
- 무역환경조성 및 관세 삭감을 통한 농산품의 가격왜곡 축소
- 효과적 수자원 정책 수립을 통한 안정적 수자원 활용
- 기본적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대

라. 수출주도형 성장 촉진

- 유연한 외환정책 및 낮은 관세정책 유지
- 인도, 미국과의 FTA 교섭 및 확대를 통한 무역자유화 촉진
-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위한 우호적 투자정책 강화
- 전력 및 교통인프라 개선 정책안정성유지 등 자유로운 무역여건 마련 등.